

“청소년의 건강은 내일의 국가자원”

1985년도는 밝은 미소가 숨쉬는
청소년들의 해!

청소년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과연 기성세대들에게
간섭을 받아야 하는가.

새로움을 찾고자,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는 견해가
조금씩은 틀린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
기성세대가 하는 모든 행동등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일까?

무조건 “청소년들은 각성해야, ”한다는 과거의
편견들을 이제는 미련없이 던져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여야 할 때가
이제 우리들 기성세대의 눈앞에 닥쳐와 있다.

대중매체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정 철 희

청소년 범죄의 동기별로 통계를 보면 영화의 영향에 의한 절도, 공갈, 강간, 강도, 외설행위, 폭행, 상해, 가출등의 순위가 가장 많고, 性 잡지에서 영향을 받고, 강간, 폭행, 도색유희 등이며 추리 소설의 자극을 받은 일반 범죄자로 되어 있다.

금세기를 가르켜 대중의사전달의 혁명 시대라 한다. 다시말해서 신문과 라디오는 제 1의 매스컴혁명이요, TV는 제 2의 매스컴 혁명이라 할 수 있다. 그밖의 다른 매스컴들도 특히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것 만큼은 분명하다.

매스커뮤니케이션 (mass communication)이 청소년 문화와 가치관의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때로는 영화나 연극, 라디오, TV, 각종 불량서적, 주간지등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년들에게 비행을 유발하여 극히 유해가 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매스미디어를 '不良文化財' 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역할을 일탈 (逸脫)하고 저속하고도 선정적인 흥미본위의 내용을 강

조하기 때문이다.

일본경찰조사에서 청소년범죄의 동기별 통계를 보면 영화의 영향에 의한 절도, 공갈, 강간, 강도, 외설행위, 폭행, 상해, 가출등의 순위가 가장 많고 다음은 性잡지에서 영향을 받고 강간, 폭행, 도색유희등이며 그다음이 추리소설의 자극을 받은 일반범죄자로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과거 「날으는 원더우먼」이나 「600만불의 사나이」등의 TV를 보고 높은데서 날으는 흉내를 내다 옥상에서 추락사한 어린아이들의 사건이 신문지상에 여러차례 보도가 되었으며 탐정소설을 읽고 각종의 범죄행위를 한 예도 있었다.

이처럼 매스컴은 어떤부분이라도 그책임에서 피할수 없으며, 특히 직접적으로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고 범행을 유발케

하는 요인을 제거키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대중매체, 특히 TV에서 방송되는 연속극이 농촌청소년의 도시동경을 자극하여 무단가출, 집단폭력, 지능범죄 등을 촉진하는 등 문제성이 많음을 생각할 때, 청소년들에게 도시나 농촌에 알맞은 극영화가 제작되고 우수한 예술작품이 나와야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이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마스커뮤니케이션에는 인쇄를 매체로 한 출판물과 음향과 영향을 매체로 전파를 통한 것이 있다. 여기에서 만일 불량출판물인 잡지, 주간지, 소설등이 가정에서 흥미로 읽혀진다면 호기심과 모방심에 가득차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고 표찰을 붙여놓고 입장시키는 업주나, 혹은 해롭다는 영화를 어른들에게만 노출적으로 보게하는 처사를 청소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금지하고 있는 대중매체 가운데 특히 성비행은 아주 민감하게 작용한다. 성의 호기심은 누구나 갖게 마련이다.

최근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짜르트르」가 과도한 성적(性的) 표시를 하게 된 것은 그가 2세때에 양친의 침실에서 같이 자다가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이 집념화된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였다.

정신과 의사 「아우구스트 프오웰」은 ‘性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

한 것처럼 역시 성은 고결하면서도 잘못 인식이 될 때는 아주 추악하게 되고 만다.

특히 오늘날 매스컴의 위력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생활을 강매(強賣)하고 있다. 이것은 매스컴이 사회심리를 형성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는 커다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춘기에는 열등 의식도 강하지만 상상력도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스타들의 일거일동에 미칠 듯이 환호를 보내기도 한다.

문제는 매스컴에서 성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데에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강한 매스미디어의 하나로서 영화를 들 수 있는데 요즈음의 영화가 가져야 할 예술성은 저버리고 흥미본위의 저속한 오락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성을 자극하는 관능적인 영화는 우리에게 성에 대한 비속감(卑俗感)을 줄 뿐, 행복의 조건이 되는 성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된다.

더구나 남녀의 러브씬, 애무하는 장면, 거의 벌거벗은 노출이 심한 남녀의 포옹, 키스 따위가 클로즈업된 장면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기 마련이다.

통계에 의하면 강간, 성교하는 장면이 성적 흥분을 가져오게 되는 율이 남학생에게 압도적으로 많고 여학생에게는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 단연 많다.

이와같이 영화가 영향을 주는 성적 자극의 원천(源泉)의 차이점을 보면, 남학생은 육체적인 장면에서 보다 강한 자극



을 받고 있으며, 여학생은 정애적(情愛的)인 장면에서 많은 자극을 받고 있다.

영화는 문학 작품과는 달리 직접 우리의 시청각을 통하여 어떤사상이나 성의 이미지를 신속히 전달하는 힘을 가진 예술이기 때문에, 다른 매스컴의 영향이 그러하듯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력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력으로는 무엇

이 옳고 그른가를 가려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영화의 어떤 장면은 10대들에게 성적 자극을 주기 쉽고, 자연 호기심이나 본능을 충동시키게 되므로, 그들의 인격 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영화의 내용을 모방하여 저지른 10대의 범죄가 하나 둘이 아니다.

청소년에게는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인가 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며, 영화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저속한 오락물은 순간의 즐거움을 줄 뿐 곧 잊어버리기가 쉽다.

참으로 좋은 영화는 청소년의 생활과 밀착(密着)해 있으며 인생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 명작들이다.

일생을 통하여 가장 독서력이 왕성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책이라면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읽고 싶어한다.

학교에서 정상적인 성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데다 성에 대한 호기심은 강한 때이므로, 성을 주제로 한 소설, 또는 성에 관한 의학 서적, 성에 관한 해설서, 여성잡지나 주간잡지 등을 많이 찾게된다.

서점에서 선 채로 읽기도 하고 친구나 선배들로부터 빌리기도해서 어떻게든지 읽고야 마는 것이다.

다른나라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 모양으로 미국의 청소년들이 성 지식을 손에 넣는 경로를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백과사전, 다음이 가정의학 서적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고교생들도 거의 서적과 잡지를 통하여 성지식을 얻고 있는데 문제

는 그러한 서적과 잡지의 내용이 대부분 성인을 상대로 한 오락위주로 되었거나 관능을 자극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성 도서는 우선 그 내용이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기의 구조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뜨이는 대로 아무 책이나 마구 읽을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선택하여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좋은 책이란 과연 어떠한 책들을 가르키는 것일까?

결국 오랜 역사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책은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성 도서에 있어서는 저명한 저자의 것이라면 일단 좋은 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서는 결혼전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성의 조화에 대한 친절한 지도서를 읽고 이것을 알아 두면, 남은 문제는 자연 두 사람의 사랑이 행복의 딸로 인도해 주기 마련이다.

또한 이 방면에 대한 책의 선택은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윗사람(부모, 교사, 그밖의 지도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중매체가 모두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제기한다. 그만큼 매스컴은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와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대한 통일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효과측정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사회마다 지닌 독특한 구조적 성격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이유와 동일하다. 더우기 가치규범의 내면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증적인 연구가 그만큼 어려움을 받게 된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효과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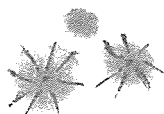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은 학문적인 관심에만 국한되기보다 사회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대중매체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주고 부정적인 측면은 취급하지 않도록 내용을 개선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중매체가 청소년시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영향가운데는 성적인 비행이 아주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규범이나 윤리 가치관등의 기본을 해칠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눈에 비치는 성적자극이나 퇴폐환경(유흥장, 간판, 서적, 성인오락등)은 근본적으로 정화 쇄신이 되어야 마땅하다.

대중매체의 내용물이 어떤것으로 제작되는가 하는 것은 역시 기본적으로는 매스미디어가 존재하는 존재양식과 그 사회의 체제나 지배적 가치관에 좌우된다는 지극히 명백한 논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청소년지도육성회 상담실장〉

청소년의 혼전 性行動



강 정 숙

1982년 서울교육연구원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남학생(고등학교)의 95.9%, 여학생(고등학교)의 62.7%가 성충동의 경향을 가졌다.

1978년 청소년의 성범죄가 1,650명에서 1982년 3,642명으로 120.7%의 증가율을 보였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변천은 인간의 성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즉, 산업화로 인한 인구이동 및 도시지역으로의 집중, 가족규모의 축소에 따른 핵가족화, 가족통제기능의 약화, 교육기회의 증대에 의한 성정보의 광범위한 확산등은 성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여 성행동을 보다 개인적인 일로, 가족 및 이웃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우리·사회의 전통적 주체는 성행동을 결혼이라는 사회적계약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혼전 성행동은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속에서 특징하게는 가족적인 맥락안에서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볼때 여성의 사회활동기회 증대, 청년기의 연장, 상업적 성문화의 발달과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

세속주의, 남녀평등주의 같은 가치의 변화가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혼전 성행동과 관련하여 특히 청소년층이 문제시 된다.

청소년은 발달기라는 측면에서 볼때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기간에 놓여있는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비록 신체발달정도,정신적성숙도, 그리고 사회적 행동 양태등에서 볼때 아동기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더 성숙화, 사회화, 될것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최대과업은 건전하고 원만한 성장과 발전이라 할 수 있다.

1982년 5월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기의 성태도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95.9%, 여학생의 62.7%가 성충동의 경향을 가진것으

로 보고되고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동은 현대를 사는 청소년의 성충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적인 반응이 행동을 사회에 표출시키게 하고 있다.

청소년의 이러한 반응과 행동은 사회적 관심과 대처를 필요로 할 만큼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성향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비사회적 행동의 단면으로서 성범죄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청소년 범죄중 청소년의 성범죄율 발생은 1978년 1,650명에서 1982년 3,642명으로 12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성을 볼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성태도 및 행동에 있어 심한 차이를 보고 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남·여는 혼전성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것으로 같은 개인에 있어서도 남자에게는 허용적이고, 여자에게는 엄격한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있는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이중기준의 현상은 매우 뿌리 깊어, 여자에게는 순결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장이 넓고, 보다 쉽게 성적 여성상을 구할 수 있는것은, 종래의 사회규범이 그들의 행동을 관용해온 다분히 사회구조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중의 하나인 성욕이 문제시되는 것은 성욕의 윤리성이 문제화되기 때문이다.

성에 대한 윤리성은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건전한 성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인간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혼전성 관계에 의한 원치않는 임신(unwanted pregnancy)은 개인, 가정내의 문제를 떠나서 복합적 사회문제로 야기시키는 소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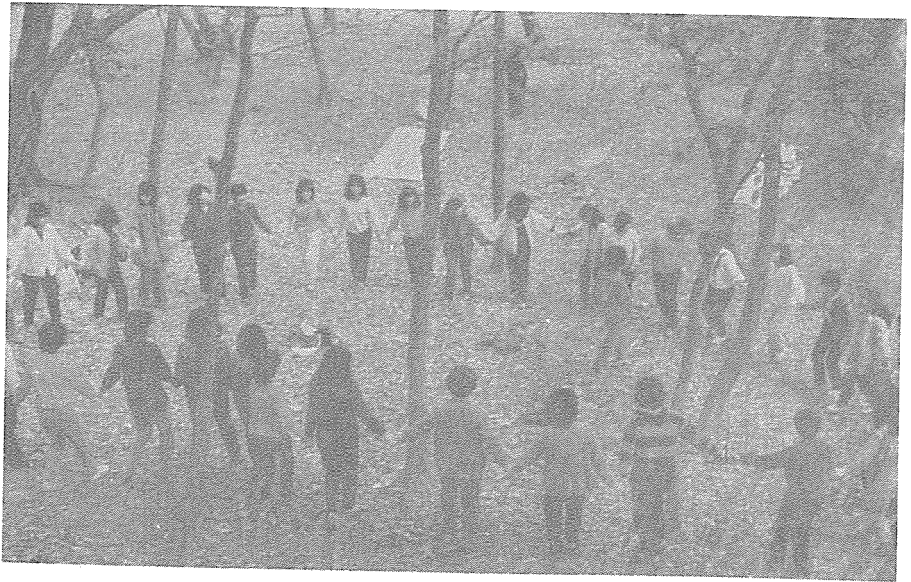
그중 하나가 미혼모 문제인데, 미혼모란 법적 혼인외의 관계에서 임신하여 출산한 여자로서, 미혼모는 사생아를 수반하게 된다.

즉, 미혼부모가 되는것은 성의 문제에 연유하는 것이며, 그들의 가정, 교육, 경제수준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연관된 일반적 문제라는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학업, 취업, 결혼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 가정은 수치로 받아들여지며, 사회로 부터의 적대감과 소외감에 휩싸이게 되어 가출, 윤락, 절도, 자살등 비행이나 더한 문제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미혼모 문제의 이와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나, 정부기관의 대책과 복지혜택은 매우 부진하며, 민간기관의 서비스도 입양상담을 중심으로 한 분만비 보조, 약간의 의료서비스와, 숙식보호등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에 그치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혼모 상담을 받고있는 기관은



서울의 5개 기관(홀트 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및 지방지부, 숙식보호시설을 제공하고있는 3기관(애관원, 구세군 여자관, 마리아부녀보호 지도소)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된 미혼모에 대해서는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인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혼전 성행동을 예방한다는 것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물론 사회윤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혼전 성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들의 성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의 실시이다.

1983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대양주 산부인과 세미나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문제가 매년 괄목할 만하게 늘고 있으나, 성교육이 전혀 되어있지않아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아시아 각국에서 원치않는 임신등 사회적인 불행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인구증가 억제에도 새로운 장애요소가 되고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생의 사회화 과정안에 포함된 조직적 계획적인 성교육을 통해 남·여 간의 올바른 관계유지와 건전한 성의식 성태도 분별있는 성습관을 지님으로서, 혼전 성행동을 예방하고, 그 사회의 문화, 사회규범이 요구하는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한국여성개발원 책임 연구 위원〉